

Move on Asia 2018 작품소개

권하윤

489 년, 싱글 채널 비디오, 11 분 18 초, 2016

권하윤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영화 제작자로 데뷔한 권하윤은 현실을 포착하는 카메라 렌즈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489 년>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꼽히는 남한과 북한간의 DMZ 풍경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단편영화이다. 권하윤은 픽션과 판타지가 상주하는 금지된 영역을 재현하여 한반도 분단의 지정학적 현실과 그것의 폭력성, 신화적 공간에 투영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489 년>에 출연하는 병사는 작가에게 DMZ 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는 정체성과 경계에 대한 사유를 투영함으로써 개별 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구성 뿐만 아니라 실제와 허구의 모호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다. <489 년>은 극도의 불안과 잠재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장소의 DMZ 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Website: <https://www.hayounkwon.com>

김웅현

언리얼(헬보바인과 포니), 싱글 채널 비디오, 16 분 47 초, 2017

김웅현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다. 주로 데이터 환경과 원격신체, 정보의 왜곡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영상 작품과 퍼포먼스, 설치를 통해 대체-서사를 보여준다. 김웅현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사회적 이슈와 가상현실 요소를 조합해 허구의 설정을 뒤섞어 작가만의 실재를 창조해낸다. <언리얼(헬보바인과 포니)>는 1998 년 정주영 회장을 따라 북한에 올라갔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2015 년 다시 서울로 돌아온 소를 도축했던 1부 <헬보바인>과 나머지 반쪽인 <포니>로 구성된다. 작가는 <헬보바인>을 통해 소떼방북사건에 등장했던 소와, 컴퓨터게임 디아블로 속 학살의 대상인 소를 중첩시켜 과거의 역사적 기호가 오늘날 끊임없이 재맥락화 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자란 세대에 속하는 김웅현의 작업세계는 '언리얼'로 요약된다.

Website: wooong.egloos.com

나츠미 아오야기

인큐베이션 다이어리, 싱글 채널 비디오, 20 분 51 초, 2016

동경에서 태어난 나츠미 아오야기는 곤충, 사람에서부터 식물, 풍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접한 다양한 대상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특정 (레코딩) 미디어를 고집하는 대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인큐베이션 다이어리>는 아시아 먹그림 나비의 유충을 수집하여 기르는 과정이 주가 되는 비디오 다큐멘터리이다. 이는 사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독특한 서사적 특성을 갖는다. 다큐멘터리의 전개 사이에는 여동생의 졸업식, 피아노 연주, 혼자 가는 여행, 가족 여행 영상들과 타자의 카메라로 찍힌 작가 자신의 영상들이 삽입되어 있다. 각기 다른 시간에 촬영된 장면들은 재구성되어 단일한 스크린에 프로젝션 되는데, 아오야기는 마치 회계 장부와도 같은 일기장의 형식을 차용하여 비디오 디바

이스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다루는 동시대적 서사 양식을 모색한다.

Website: <http://datsuo.com/>

료 히라노

홀리데이, 애니메이션, 13 분 46 초, 2011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인 료 히라노는 현재 온라인상에 GIF 애니메이션으로 된 코믹물 시리즈 <판타스틱 세계>와 <미러볼 채널>을 연재 중에 있다. 료 히라노는 유령, 사랑,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소설 작업을 한다. 히라노는 주로 인체에 집착한다. 전 작업인 <판타스틱 월드>와 <파라다이스>에서는 치아와 음모에, <홀리데이>에서는 귀에 집착한다. 물을 사용하는 그만의 특징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은 러시아 감독 유리 놀슈테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물을 그리는 것이 골칫거리라고 솔직히 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히라노 만의 깊고 두텁게 채색된 세계와 함께 낯선 분위기를 만든다.

Website: <http://ryohirano.com>

베이든 페일숄프

피치 데크, 싱글 채널 비디오, 5 분 15 초, 2017

호주 작가인 베이든 페일숄프는 인터넷 문화에서 영향 받은 예술가 집단 중 한 명으로, 권력, 정치 및 후기 자본주의 문화와 공간성을 다루는 극사실주의 애니메이션, 비디오, 조각 작업들을 선보인다. 기업 마케팅용 프레젠테이션의 양식을 차용한 <피치 데크>는 문화 자본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의 잠재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무빙 이미지를 소개한다. 고품질의 3D 애니메이션, 커스텀 된 게임용 PC, 액체냉각, 로마식 갑옷, 웹 스크래핑, 샴페인, 그리고 스타트업의 쉬크함이 결합된 영상은 개념 예술의 근본 원리를 차용하여, 재료의 형태보다 개념 자체에 의거한 저작 관습과 작품의 지위에 도전한다. <피치 데크>는 미학적이고 개념적인 작가들이 예술 후원자가 아닌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지원을 받고, 스튜디오가 아닌 인큐베이터에 의해 흡수된 것은 아닌지 고찰하게 한다.

수 휘유

더 워커, 싱글 채널 비디오, 19 분, 2017

타이완 작가인 수 휘유는 이미지, 미디어, 역사, 일상생활 등이 결합된 복잡한 태피스트리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대중 매체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청자의 생각, 이데올로기 및 욕구를 미디어에 투사하는 것을 탐구한다. 수 휘유는 대학 시절부터 '타이완 워커'라는 연극단의 공연들을 관람하곤 했다. 타이완의 토착 사상에 기초하고 제도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을 넘어서 '타이완 워커'의 DIY 정신은 수 휘유의 작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 워커>에서 작가는 '타이완 워커'의 세 개의 연극을 (<메리 스쿠터, 1993>, <나쁜 자식, 1996>, <가장 흥분되는 소설들, 2000>)을 해체했다. 그는 연극 속 역할의 구조를 발췌한 후, 연극조의 방식을 모방해 아마추어 배우들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다양한 주인공들이 만드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진 <더 워커>는 극장에서 실현되었던 예술적 유토피아를 떠

올리게 하며, 송고함에서부터 터무니없음 까지를 넘나드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 혼성적 예술세계를 이끌어낸다.

Website: <https://www.suhuiyu.com>

셴 신

나이팅게일의 도발, 싱글 채널 비디오, 23 분, 2017

중국 태생의 셴 신은 런던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작업한다. 셴 신은 무빙 이미지와 퍼포먼스적 이벤트를 통해 감정, 판단, 윤리가 개인 그리고 집단 주체들 사이 순환하는 테크닉과 효과를 탐구하며, 정서적 관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나이팅게일의 도발>은 불교와 실용주의의 경계를 탐구한다. 영상은 어느 한 DNA 검사 관리자와 그의 명상 스승인 두 명의 여성들 사이의 친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셴 신은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불교가 동화된 사례들을 연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작품 <나이팅게일의 도발>로 완결되었고, 작가의 결론은 양분화 된다. 한국 불교계는 외국인 여성들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비 균형이 잘 맞는 불교계로 발전한 반면, 티베트 불교계는 유럽 각지로 동화되면서 성폭행과 아동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나이팅게일의 도발>은 도발의 윤리를 전제로 하는 참여 방식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복잡성에 맞서고, 그런 세상과 서로 주고받을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Website: <http://www.shenxin.info>

아흐멧 오곳

단결, HD 애니메이션, 3 분, 2016-2017

터키 태생의 아흐멧 오곳은 베를린과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사회문화 촉발자이자 예술가이며, 강연자이다. 그는 난민과 망명자들에 의한 자율적 지식 교류 플랫폼 "침묵하는 대학"을 설립했다. 아흐멧 오곳은 1987 년 서울에서 사망한 21 살의 학생 시위자 이한열과 2006 년 작가의 조국인 터키의 디야르바키르에서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6 살의 쿠르드족 소년인 에네스 아타를 추모하며 애니메이션 <단결>을 제작하였다. 한국의 만화 형식을 취하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두 청년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두 청년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또한 이들은 최루가스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는 화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미 국가 권력에 의해 사라져버린 두 청년이 다시금 등장하여 제 3 자의입장으로 최루가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한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적인 사회에서 위트와 유머의 휴머니즘을 발굴해낸다.

Website: <http://www.ahmetogut.com/>

야손 바날

피에스타 필리버스터, 싱글 채널 비디오, 3 분 19 초, 2015

필리핀 작가인 야손 바날은 영상, 사진과 조각, 퍼포먼스와 텍스트 및 회화를 사용한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확산하는 듯 보이는 시스템들 사이의 연관성, 마찰과 굴절들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형태들과 비평적인 전략들을 취한다. <피에스타 필리버스터>는 2015 년에 행해졌던

작가의 퍼포먼스를 재구성한 영상이다. 영상은 마네킹 퍼포먼스, 갤러리 간판들, 허구의 갤러리 프랜차이즈들, 현대 철학자들 그리고 <체제 전복>에서 발췌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화려하고 경쾌한 디지털 영상인 <피에스타 필리버스터>작업을 통해 동시대 예술과 자본의 불합리한 연대를 고발하고 글로벌 캐피털리즘 체제의 전복을 꿈꾼다.

윙 핑

아빠가 누구니,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9분 15초, 2017

윙 핑은 홍콩의 가장 주목할 만한 청년작가들 중 한 명이다. 작가는 공상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하여 억압된 성과 욕망, 본능 같은 개인적인 정서와 사회 정치적 한계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회 미학적 담론들을 만들어왔다. 중국의 인기 동요에서 영감을 얻은 <아빠가 누구니>는 화려한 팝아트적 이미지와 장난스럽고 코믹하게 표현된 캐릭터들과 대조적으로 매 장면 어두운 분위기가 흐른다. 관객 앞에 나타난 주인공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사진으로 잠재적 배우자의 정치적 신념을 평가한다. 그는 결국 엄격한 종교윤리를 실천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뒤이어 그들의 관계는 남자가 가지는 여성의 복종에 대한 페티쉬를 드러낸다. 그의 페티쉬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관한 레퍼런스와 병치되며, 남자의 무능함과 여자의 종교심이 결합되어 주인공은 무정한 싱글대디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정체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윙 핑의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 행위들까지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유안 케루

부유하는 낯선 이들, 싱글 채널 비디오, 27분 10초, 2017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유안 케루는 현재 상하이에서 비주얼 아티스트, 영화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유안 케루는 그림의 감각, 공간 리듬 및 비디오의 서사를 탐구하고, 진행 중인 사건, 감정을 역사, 신화, 꿈 등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유하는 낯선 이들>은 4개의 평행 세계를 시각화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4개의 가벼운 공상 과학 스토리들을 들려준다. 4개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각자 시험 대상, 관리자, 생존자, 사이보그로 구성된다. 그들은 점차 과학 발전과 시스템 조작에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고 권리를 빼앗기며, 그 속에 동화되어 간다. 유안 케루가 지난 수년간 집중해 온 영화의 내러티브에 대한 창작적 관심은 작업의 주요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부유하는 낯선 이들>은 구성적 서사구조를 포함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적 시도다. 그 핵심에는 포스트모던 인류의 모순된 모습과 그 결과로 초래된 존재의 상실 그리고 블랙홀 같은 외로움을 반영한다.

조규빈

목적어 없는 일기, 싱글 채널 비디오, 1분 18초, 2018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규빈은 계명대학교에서 영상 애니메이션을, 홍익대학교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영상 정책 및 기획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2D 픽셀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규빈은 콜라주 기법으로 제 3의 공간을 재생산한다. 익숙하고 흐릿한 이미지들을 파괴하고, 낯선 공간에 재배치함으로써 관객

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한다. 작가에게 콜라주는 또 다른 소통의 도구로서 '아무도 아닌 사람'의 공간을 구현한다. '아무도 아닌 사람'은 삶의 불확실성에 무던한 태도로 대면하는 작가의 고백이다.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양상한 공포의 대상이 남긴 흔적은 <목적어 없는 일기>에 재현된다.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

재미있는(기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 3

싱글 채널 비디오, 24 분 55 초, 2015

태국에서 태어난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는 뉴욕과 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작가는 양식과 매체의 모방을 통해 작가는 서양과 태국의 문화적 내러티브들과 신념체계들, 예술적 실천들 사이의 공통점들을 찾고자 한다.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는 2012 년부터 4 년간 가족과 친구들의 기억을 수집하여 3 부작으로 구성된 영상을 제작했다. <재미있는(기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 3>은 3 부작 시리즈의 에필로그이다. 영상 속 그는 주인공 찬트리와 함께 보낸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찬트리는 영혼과 소리로 존재하는 소통과 공간의 화신이다. 에필로그에서 처음으로 찬트리는 그의 어머니, 추타팁 아루나논드차이의 목소리로 작가에게 말을 건넨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변동을 거듭하는 현재와 불안한 미래인 디지털 시대에 상실된 기억에 대해 다루며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인 경험의 파편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종결된다.

퀸 동

늦은 가을, 싱글 채널 비디오, 11 분 22 초, 2015

퀸 동은 베트남, 하노이의 항구인 하이퐁에서 태어났고, 현재 취리히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문화적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의도적인 콜라주 작업을 통한 하이퍼리얼리티 영상으로 본질적 플랫폼을 제공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낭만과 키치적 미학을 추구한다. <늦은 가을>은 매스 미디어에서 파운드푸티지를 가져와 아시아적 유형의 이미지를 이어 붙인 작품이다. 영상에는 일본 단풍의 풍경, 중국 회화의 컬러, 경북 청송 주산지에 있는 나무의 형태, 서유기의 음악이 혼합되어 사용된다. 이는 새로운 현실을 위한 가능성이나 제시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퀸 동은 <늦은 가을>에서 스테레오 타입에 반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을 생성하고자 한다. 몇 초간 지속되며 등장하는 아홉 번의 정적인 포즈는 작가의 신체 언어적 어휘를 드러낸다. 작가는 신체의 조각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신체를 형태가 주어질 필요가 있는 물질로 제시한다.

Website: <https://quynhdong.ch/>

하이탐 인나사르

뉴 시티, 싱글 채널 & VR 게임, 10 분, 2016

하이탐 인나사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예술가이자 게임 디자이너다. 그는 깨끗한 공간들에서 지지분한 몸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우월함의 허위성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뉴 시티>는 가상현실의 게임매체를 활용하여 작가가 느끼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

한 두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3D 영상에 출현하는 수많은 별빛의 이미지는 과학의 좌표와 경제자본의 단위를 연상케 하며 자연, 기술, 자본 간의 불확실한 관계성을 암시한다. 하이탐은 <뉴 시티>에서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도시에 대한 모호함과 불안함을 묘사한다.

Website: <http://haithamennasr.com>